

2010. 7. 5 제242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동향

2010. 7. 5 제242호

문화·디자인

1. 샹젤리제 거리를 잔디밭으로 조성 (파리)

산업·경제

2. 여성의 자립과 기업활동 장려 (베를린)

건강·복지

3. '방과 후 공원 프로그램' 시행 (뉴욕)

행정·재정

4. 시민 상호 간에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는 '시간은행' 프로그램 시행 (뉴욕)

도시환경

5.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그린 뉴욕' 캠페인 (뉴욕)
6. 중고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나눠주는 행사 실시 (런던)
7. '100% 전력 사용 주택' 분양 증가세 (도쿄)
8. 건물 재생수를 도로에 뿌려 열섬효과 방지 (도쿄)

도시계획 · 주택

9. 서민주택과 가족형 공영주택 공급 확대 (런던)
 10. 첨단 유럽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계획 수립 (영국 뉴캐슬市)
-

문 화 · 디 자 인

1. 상젤리제 거리를 잔디밭으로 조성 (파리)

○ 파리 상젤리제 거리가 2010년 5월 23~24일 온통 푸른 자연으로 뒤덮였음 (아래 사진 참조). 파리는 ‘자연수도’라는 주제로 약 3ha의 공간에 잔디판 8000개를 깔아 푸른 정원을 만들고 이곳을 농산물과 임업 특산품 약 150개로 가득 채움.

- 市가 주도하고 ‘젊은 영농회’가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프랑스 삼림협회가 잔디판을 제공함. 행사 후에는 개인이나 회사가 잔디판을 몇 조각씩 구입해 정원이나 학교 운동장, 공공 혹은 개인 정원에 옮겨 심어 키울 수 있도록 함. 이는 개인이 식물을 가까이에서 기르고 자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은 인류와 환경 간의 불안정한 조화,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를 숙고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음. 또한 유관

분야 전문가와 직접 논의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파리 중심지에서 행사를 개최했으며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음. 파리에서 처음 시도했으나 점차 다른 유럽 대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열 것으로 전망됨.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13&document)

산 업 · 경 제

2. 여성의 자립과 기업활동 장려 (베를린)

-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를 추구하는 지역에서는 여성 기업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 창조와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베를린市는 2001년부터 ‘여성 기업가의 날’을 지정하여 여성 기업가의 능력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행사를 2년마다 개최함. 市 경제국과 베를린 투자은행이 주최하고 유럽연합 지역발전기금이 지원함.
 - 행사 목적은 ① 자립과 기업체 운영에 성공한 여성 기업가 간의 만남과 의견 교환, ② 창업자와 창업 희망자에게 회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전달, ③ 여성 기업가 간 네트워크 강화 등임.
 - 2010년에는 제5회 행사가 5월 19일 열림. 주제는 ‘이민자 출신 여성 기업가를 위한 기회와 도전’으로 이민 여성의 자립을 위한 세미나, 포럼, 정보마당, 여성 기업가상 시상식 행사가 개최됨.

- 세미나, 포럼, 정보마당에서는 여성 기업가, 창업자,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회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업 지원 정보 등을 전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임.
 - 세미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① 은행 접촉 및 인터뷰 준비 교육, ② 회사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 사업전략 수립,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술 교육, ③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 전망 제시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림. 참가비는 25유로(약 3만 8000원)임.
 - 포럼은 여성 기업가 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강화해주는 장임. 市는 여성 기업가를 위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자립에 성공한 기업가뿐 아니라 창업자와 창업 희망자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와 사업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필요한 파트너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정보마당에서는 경제 분야 비영리단체와 상담기관 등이 여성 창업자와 창업 희망자, 이미 궤도에 오른 기업가에게 필수 정보와 개별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함.

- 여성 기업가상 시상식에서는 2년간 베를린에서 두드러진 기업활동을 한 기업가를 독립적인 심사위원단이 선정하여 상을 수여함. 심사기준은 회사 수익률 성장세,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인적 자원 관리, 독특하고 모범적인 인생 이력 등임.

(www.berliner-unternehmerintag.de)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6/16/299551/index.html)

건 강 · 복 지

3. '방과 후 공원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시는 2009년부터 학기 중에 市 공원 및 여가국 주관으로 '방과 후 공원'(The Parks after School) 프로그램을 시행함.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방과 후 해당 지역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무료로 체육 및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청소년이 방과 후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에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어린 학생들이 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② 지역사회에 유대감을 느끼며, ③ 지성과 감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둠.
 - 만 6~13세 어린이는 市 소재 공원 32개소와 여가센터에서 문화, 체육, 기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현재 어린이 3000여 명이 월~금요일 오후 3~6시에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함.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취학아동 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며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음.
 - 학업 지도: 숙제 및 학업 지도 외에도 컴퓨터 활용과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음악·미술 지도: 학생이 창의적인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하여 읽기, 쓰기, 드라마, 음악, 미술, 춤 등을 지도하며 문화 다양성에 관한 강좌도 개설함. 다양한 체험학습과 문화센터 방문프로그램도 포함됨.

- 체육활동: 어린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해 수영, 체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함.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학생 개인의 체육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 스포츠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때때로 시장(市長)배 경기대회도 개최함.

- 맞벌이 부부가 많은 뉴욕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뿐 아니라 취학 아동을 위한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를 위해 市는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www.nycgovparks.org/sub_things_to_do/programs/afterschool/asp_info.html)

동물원을 방문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유비쿼터스 전동 휠체어’ 대여 (도쿄)

- 도쿄都에 있는 우에노 동물원은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 10월부터 IC 태그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휴대용 단말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함. 휴대용 단말기로 동물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듣거나 볼 수 있어 호평을 받음. 동물원은 또한 2010년 6월 15일 휴대용 단말기를 부착한 전동 휠체어(유비쿼터스 전동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시작함.

- 65세 이상 고령자와 20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여하며 이용요금은 무료임. 휴대용 단말기가 부착된 휠체어를 타고 동물에게 접근하면 자동으로 그 동물의 특징이 음성과 영상으로 소개됨. 안내직원이 동행하므로 단말기 사용과 휠체어 운전에 대한 도움도 청할 수 있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6/20k6e200.htm)

행 정 · 재 정

4. 시민 상호 간에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는 ‘시간은행’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시는 웹사이트에서 시민 개개인이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를 시민 상호 간에 교류·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은행 뉴욕’(TimeBanks NYC) 프로그램을 시행함. 다른 사람에게 정보나 기술, 자원을 전하는데 사용한 시간은 TimeBanks NYC에 ‘Credit’으로 쌓여 다른 기술이나 자원을 받거나 배우는 데 활용함.
 - 이 프로그램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간에 여가, 간호, 정보 교류, 지식 전달, 친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이는 각자 필요에 따라 시간을 투자하고 교환하는 ‘시간은행’ 개념으로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인적·사회적 자본을 키워가는 방법임.
 - 시민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에는 ① 카풀(Car Pool), ② 가사와 업무 지원, ③ 음악·미술·창작 등의 예술활동, ④ 생활용품 수선과 집수리, ⑤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 교육 등 일상과 관련된 항목도 포함됨.
 - 현재 5개 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2011년까지 25개 커뮤니티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임. 참여 시민은 ① 기술이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② 시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며, ③ 서비스 교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배움.

- 서비스 교환은 ‘시간’을 교환하는 것임. 자신의 전문성을 타인에게 제공해 ‘Time Credit’을 얻은 서비스 공급자는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커뮤니티에서 해당 Credit을 사용할 수 있음.
 - 시간을 마치 화폐처럼 쌓아두었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사회적 참여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됨.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함. 데이터베이스는 區 단위로 구축·운영되지만 참여하는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市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방법은 ‘시간은행 뉴욕’ 홈페이지나 311 민원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음.

(www.nyc.gov/html/timebanks/html/home/home.shtml)

도 시 환 경

5.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그린 뉴욕’ 캠페인 (뉴욕)

- 뉴욕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려는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방법을 홍보하는 ‘그린 뉴욕’(GreenNYC) 캠페인을 실시함. 市는 이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실시해 에너지 절약습관이 생활화되도록 할 계획임.

- 캠페인에서는 주로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홍보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찬물로 세탁: 미국 가정에서는 대부분 세탁 시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데 찬물을 사용하면 상당 부분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음. 아울러 세탁기에 빨랫감을 가득 채워 세탁하는 방법도 권장함.
 - 청정전기 사용: 전체 시민의 10%가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억 파운드 이상 저감할 수 있음. 가정에서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PowerYourWay.com에 등록해야 함.
 - ‘에너지 스타’ 표시가 있는 제품 이용: ‘에너지 스타’ 표시가 있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은 제조 시 에너지 사용량을 일반 제품에 비해 10~50% 줄인 것임. 전열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 가전제품 역시 절전형을 이용할 것을 권장함.
 - 가전제품 이용 시 절전형 플러그를 사용하고 평소에는 스위치를 끄는 습관 기르기: 충전기, TV, 컴퓨터, 기타 가전제품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뽑아두거나 플러그 스위치를 꺼두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연간 200달러(약 25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음.
 - 절전형 전구로 교체: 고효율 전구 사용으로 가정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과 도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임. 절전형 전구는 일반형 전구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75% 이상 절약할 수 있으며 전구 수명도 10배 이상임.
 - 양치질하는 동안 수도꼭지 잠그기: 양치질하는 동안 흘려보내는 수도물은 분당 약 4리터에 달하기 때문에 수자원 절약을 위해 수도꼭지 잠그기를 권장함.

- 수돗물 마시기: 뉴욕 수돗물은 수질기준을 충족함.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경우 생수를 사먹는 경우보다 연간 170여만 원 이상 절약함.
-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사용: 자연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 음료수 등을 구매할 것을 권장함.
- 친환경 페인트 사용: 도배지보다는 페인트를 주로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나무 심기: 市가 시행 중인 ‘나무 100만 그루 심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사유지와 공유지를 대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침.
- ‘에너지 감사’ 실시: 시민 스스로가 가정에서 쓰는 전력량을 조사하여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전력량을 줄일 것을 권장함.

(www.nyc.gov/html/greenyc/html/home/home.shtml)

6. 중고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나눠주는 행사 실시 (런던)

- 런던市는 중고 가전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해 오래된 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재활용 주간’(Recycle for London) 행사를 2010년 6월 24~27일 개최함. 2009년 한 해 동안 런던 시민은 소형 가전제품을 2000만 개 구입하고 전체 시민의 1/4은 중고 가전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으로 조사됨. 市는 재활용 주간에 오래된 가전제품을 수거한 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줌.
 - 이 행사는 그린사이드 커뮤니티 센터, 세인트 존 교회 등에서 열림. 이곳에서 오래된 가전제품을 수집하고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나눠주며 나눠주고 남은 가전제품은 ‘영국 심장재단’에 보내 재판매하게 됨.

판매하지 못한 가전제품은 최종적으로 재활용 처리시설로 보냄.

- 주로 수거되는 중고 가전제품은 토스트기, 다리미, 선풍기, 라디오, DVD 플레이어, 전화기, 휴대전화, 카메라, 전기 장난감, 헤어드라이기, 전동칫솔 등임. 이곳에서는 시민이 가져온 중고 전자제품이 사용 가능한지를 먼저 조사한 뒤 수거함.

- 브렌트, 웨스트민스터 등 런던 내 자치구와 영국 심장재단, 프리 사이클 (Free Cycle), DHL 등이 이 행사에 참여함. 기관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프리 사이클은 가전제품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역할을 수행함. 재사용과 재활용 장려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기관으로 런던에 지점 39개소, 회원 32만여 명이 있음.
- 영국 심장재단은 가구와 가전제품 가게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 목적으로 중고 가전제품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음. 기증 의사가 있는 시민을 방문하여 가전제품을 수거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 홈페이지(www.bhf.org.uk/shops)를 운영함.
- 배송업체인 DHL사는 런던에서 재활용센터를 30개소 운영하면서 중고 가전제품을 수집하고 있음.

(recycleforlondon.com/reduce-reuse/givetake.jsp)

(www.london.gov.uk/event-meeting/2010/jun/recycle-week-give-and-take)

7. '100% 전력 사용 주택' 분양 증가세 (도쿄)

○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100% 전력 사용 주택' 분양 가구 수가 5만 4000세대를 돌파함. 100% 전력 사용 주택이란 도쿄전력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에너지절약형 조리, 급탕,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이 시스템을 전부 전기를 이용해 가동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주택을 말함. 공급받는 전력은 전력회사가 생산한 전력과 자체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모두 포함함.

- 100% 전력으로 가동되는 급탕, 조리, 냉·난방 설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급탕 설비로는 전기온수기나 자연냉매 열펌프 급탕기(사진 참조)를 사용함. 자연냉매 열펌프 급탕기는 공기 열로 온수를 공급하는 전기 급탕기로 프레온이 아닌 이산화탄소를 냉매로 사용하며 기존 급탕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50% 저감함. 심야 광열비는 절감되지만 주간이나 여름철 광열비는 증가하기도 함.
- 조리 설비로는 IH 조리기(사진 참조)를 채택하고 있음. 전자유도 원리로 음식물을 직접 가열하므로 설비 자체 열효율은 높으나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할 경우 가스레인지보다 에너지효율이 약 6% 낮음.
- 냉·난방 설비로는 에어컨, 축열식 전기 난방기, 온돌(전열식, 축열식, 열펌프 온수식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00볼트 전압을 사용함. 전기요금은 심야, 주간 시간대에 따라 kWh당 9.17엔(약 127원)에서 28.28엔(약 393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여기에는 연료가격 변동 조정액과 태양광 발전 촉진 부가금이 포함됨. 2009

년도 만족도 평가에 의하면 입주자 94.4%가 만족하고 있고 92.4%가 '100% 전력 사용 주택'을 주변에 권유하겠다고 답함.

- 시즈오카縣, 나가노縣 등 일본 중부지역에서는 '100% 전력 사용 주택'이 50만 호를 돌파함. 많은 주택이 리모델링을 실시해 2008년 중부지역 신축 단독주택의 절반 정도가 '100% 전력 공급시스템'을 도입함. 공사비용은 기존보다 약 100만 엔(약 1389만 원) 정도 더 들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광열비를 연간 약 8만 2300엔(약 114만 원) 절약할 수 있어 10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음.
- 가스 공급업체도 '100% 가스 사용 주택 설비'를 제공하기 시작함. 가스를 이용한 온돌 난방비가 전기 사용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가정용 연료전지와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복합 활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한다고 강조함.



자연냉매 열펌프 급탕기



IH 조리기

- 이처럼 전력과 가스업계 경쟁으로 주택 부문 에너지 공급에 새로운 장이 펼쳐져 주택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가 기대됨. 하지만 화력발전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는 ‘100% 전력 공급시스템’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www.ja.wikipedia.org)

(요미우리신문, 2009.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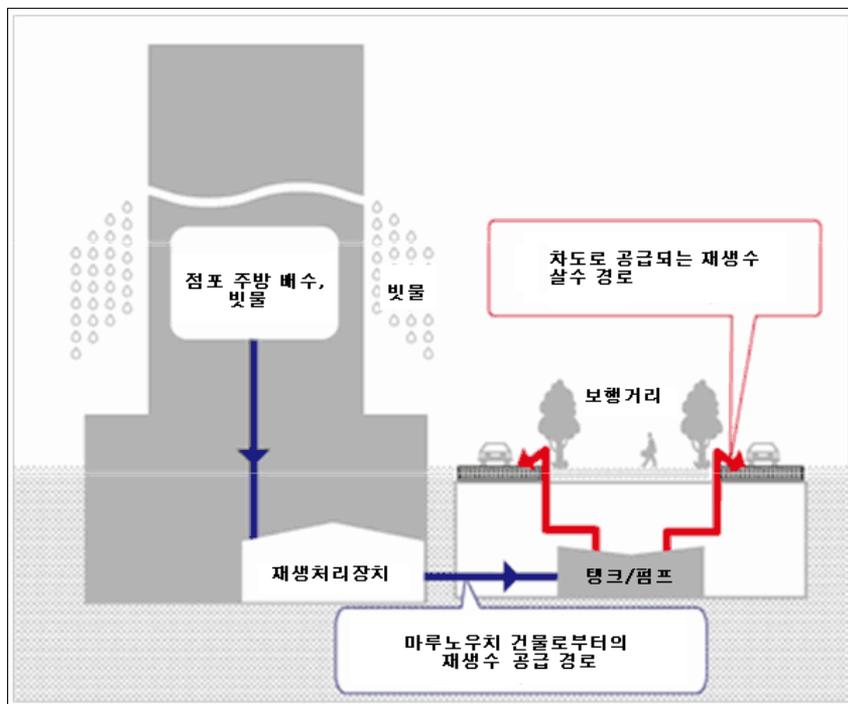
어린이 보호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 등급 획득 (영국 브리스틀市)

- 영국 브리스틀市는 아동과 청소년 교육·보육 부문 평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최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음. 市는 사회복지, 보건, 경찰, 자원봉사 활동 분야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의 노력, 취약계층 아동 보호·보육·교육 지원 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자평함.
- 이번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항목은 ① 전략적인 파트너십 형성, ②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지원활동, ③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법, ④ 市 아동보호국의 리더십과 관리역량, ⑤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 충원, ⑥ 다양성 및 평등성 증진과 성과예산 시행 등임.

(www.bristol.gov.uk/ccm/content/press-releases/2010/may/bristol-safeguarding-services-judged-good.en)

8. 건물 재생수를 도로에 뿌려 열섬효과 방지 (도쿄)

- 도쿄都는 열섬효과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6월 21일부터 시가지 도로 일부 구간에 건물 재생수를 살수(撒水)함. 都 건설국과 미쓰비시 토지 주식회사는 그동안 재생수를 활용한 살수설비 설치사업을 진행해왔음. 살수설비 설치사업은 2009년 일본 환경성이 추진한 ‘Cool City 시가지 시범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환경성의 지원을 받고 추진해온 사업임.
- 都 건설국은 도로 포장 내부에 물을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는 탱크와 펌프, 통기성 포장 아래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보수성 재료 등을 시공하고 미쓰비시 토지 주식회사는 건물 재생수를 도로상에 뿌려주는 살수설비를 설치함(아래 그림 참조).



살수설비 설치사업 개념도

- 살수설비가 설치된 구간은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에서부터 히비야 대로까지의 일부 구간이며, 재생수는 마루노우치 빌딩 측으로부터 공급받음. 마루노우치 빌딩 측은 주방 배수나 빗물을 처리해 만든 재생수를 빌딩 내 화장실과 녹지 재배에 활용해왔음.
- 살수된 재생수는 일정 시간 도로 포장 내에 머물게 되며 노면 온도가 상승하면 노면의 열과 함께 증발하게 됨. 살수설비 설치로 노면 온도를 기존 포장에 비해 섭씨 10도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살수작업은 2010년 6~9월 중에 기후와 기온을 고려하여 실시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6/20k6h100.htm)

도시계획·주택

9. 서민주택과 가족형 공영주택 공급 확대 (런던)

- 런던시는 어려운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지난 2년간 서민주택 2만 6000호를 공급함으로써 2012년까지 서민주택 5만 호를 건설한다는 계획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했다고 밝힘. 시는 앞으로도 주택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양질의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가족형 공영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시는 많은 서민이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고 좁은 주택은 주민 복지, 일자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가족형 공영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힘.

- 최근 조사에 의하면 열악한 주택사정으로 일어나는 보건범죄 때문에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40억 파운드(약 7조 3261억 원)에 달함. 한 민간기관은 런던에 사는 어린이 33만 명이 좁은 주택에 살고 있고 시민 35만 명이 공영주택 공급을 기다리며 비싼 민간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주택과 공영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 영국 주택협회도 중앙정부와 런던市가 추진 중인 서민주택 확충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힘. 서민주택 공급 부족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더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주택시장과 건설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함.

- 市는 현재 추진 중인 8개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7개가 런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서민주택을 확충해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 전까지 노숙자가 사라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delivers-over-26000-more-affordable-homes-london)

10. 첨단 유럽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계획 수립 (영국 뉴캐슬市)

- 영국 뉴캐슬市는 첨단 유럽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특색 있고 활기 있는 도시경관 조성전략을 담은 20년 장기계획 ‘1 플랜’을 수립함. 이 계획에는 뉴캐슬을 시민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투자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관광객이 문화적인 매력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음.

- 1 플랜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지역의 잠재력과 매력적인 자원을 발전시킬 최적기라는 판단에서 추진됨. 이 계획에서는 이 지역을 뉴캐슬 대학교와 노섬브리아 대학교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연구를 주도하는 지식집약 산업 메카이자 저탄소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
 - 市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며 도심부의 업무, 상업, 주거 기능을 발전시킬 계획임. 또한 문화 및 과학도시 조성을 위한 수변지역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영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국제 컨퍼런스 센터를 건립할 예정임.
- 市는 이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며 빈곤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www.newcastle.gov.uk/core.nsf/a/1plan)